



[특집]폭력의 희생자 예수, 생명의 회복자 예수-폭력적 문명과 생명 경시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기독교사상 46(3) , 2002.3, 70-82(13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기독교서회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134498
APA Style	양명수 (2002). [특집]폭력의 희생자 예수, 생명의 회복자 예수-폭력적 문명과 생명 경시. 기독교사상, 46(3), 70-82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1/08/11 10:4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폭력적 문명과 생명 경시

우리 모두는 카인의 후예다. 우리 속에는 공격 본능을 갖고 있으며, 공격 본능은 곧 파괴 본능이요, 죽음의 본능으로 폭력을 동반한다.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짐으로 등장한다. 즉 폭력은 생명을 가진 존재를 업신여기는 행위이다. '업신여기다'는 '없이 여기다' 또는 '없는 것처럼 여기다'는 뜻이다. 존재를 무시한다는 얘기다. 현대 문명은 바로 이런 폭력성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먼저 현대 문명은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돌입하면서 능력 위주의 사회를 추구함에 따라 인간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연은 생산을 위한 재료요, 인간은 경제 가치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 생명 경시가 깔려 있다. 인간은 더 이상 이런 폭력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죄를 타고났고 죄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된다. 생명 자체를 긍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생명체인 나를 차별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 그래서 폭력없는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양명수

현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법대와 감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의 공격 본능

인류는 폭력이 없는 문명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날 절망적인 상황은 미국이 앞장서서 보여 주고 있다. 9·11 폭발 사건이 있는 후, 미국 대통령 부시나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마치 이성을 상실한 사람들처럼 철저한 복수를 다짐하고 아프간 땅에 미사일을 퍼부었다. 무슨 강패 같은 얼굴을 하고 복수의 정의를 말하는 그들을 세상은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보며 거드는 상황이다. 유럽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미국 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더구나 부시는 2001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다고 하지 않는가. 평화의 해를 선포해도 모자랄 텐데, 내놓고 전쟁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21세기에 통할 수 있다니 귀가 의심스럽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덕적인 능력을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는지 절망적이다. 그리고 문명이 도덕적인 진보를 보여 줄지 의심스럽다. 이른바 테러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도 없지만, 미국이 승리해서도 안 된다. 만일 힘이 곧 정의라는 도식이 정착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명은 파멸이고, 인간의 역사는 저주로 마감할 것이다. 문명이 파멸로 치달을 때, 개인도 파멸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문명 전체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문명은 세계화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면 다같이 살고 죽으면 다같이 죽는 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사실 국가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말하자면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죄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문명의 이름으로 아시아를 침공했다. 사상적으로는 사회진화론으로 무장하고, 물질로는 증기엔진과 철로 된 신식 군함으로 무장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따른 팽창주의의 길을 열었다. 영국이 일으킨 아편전쟁에서 보듯이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부흥을 위해 중국인들을 아편 중독자로 만들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다. 국가이기주의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국민 전체를 아편 중독자로 만들 수 있는 폭력성을 보여 준 사건이다. 물론 일본도 근대 동아시아에서 서구를 본받아 국가주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국가 폭력도 있다. 개인과 개인끼리의 폭력도 있다. 신학에서 보자면 그런 모든 폭력 배후에 있는 인간의 폭력성을 말해야 한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상가는 인간 사회에 근본적인 폭력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 사랑이 아닌 폭력이 이 사회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하고 남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람은 늘 충돌한다는 것이다. 모방 본능에서 비롯된 공격성이다. 프로이트도 인간에게 공격 본능이 있다고 보았다. 초기에 그는 인간의 문명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성 본능으로 보았지만, 후기에 가서는 리비도에 못지 않은 공격 본능으로 보았다. 공격 본능은 파괴 본능이요, 죽음의 본능이다. 남을 죽이려는 마음은 스스로 죽고 싶은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 거대한 이 두 거인의 싸움이 문명의 실체라는 것이다.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공격 본능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아주 근본적인 힘이다. 마르크스는 어떤가? 그는 약자를 착취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인식이 크게 왜곡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른바 이데올로기 문제다. 동양의 학자들이 성선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선한 본성을 강조했던 반면에, 서양 학자들은 인간의 폭력심을 폭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개인에 대한 개인의 폭력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집단과 집단의 충돌은 애국심이나 애향심 또는 애교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적이 있는가?

심지어 인간의 선한 이성 능력에 바탕을 두고 맹자나 주자처럼 인문주의 문명의 세계를 열려고 했던 칸트마저도 인간의 뿌리깊은 근본악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아마 기독교의 영향일 것이다. 성서에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으로부터 에덴 이후 인간의 역사는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카인의 후예다. 사람이 일구는 문화와 문명의 바탕에 살인과 살기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인다. 개인에 대한 개인의 폭력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집단과 집단의 충돌은 애국심이나 애향심 또는 애교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적이 있는가? 인류의 첨단 기술은 대부분 무기의 발달을 통해 등장하였다. 신식 기술은 곧 신식 무기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복수가 정의가 아니라고 정당한 근대 법이 탄생한 이후에도 죽임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 죽이고 다른 쪽에서 보복을 한다.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폭력의 본질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곳에 폭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한 존재를 우습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폭력의 핵심이다.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폭력의 근원에는 생명을 가진 존재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있다. 카인의 얘기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카인이 아벨을 죽



이기 전에 알 수 없는 차별이 있었다. 카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다. 아무런 까닭도 없다. 성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후, 사람 사회에 알 수 없는 차별이 생겼다. 그것이 최초의 폭력이다. 사람은 차별받을 때 분노하고 살기를 띈다. 차별받은 카인이 결국 살인하지만, 살인 이전에 차별이 곧 최초 폭력이다. 성서에는 그 차별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차별을 뜻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일구는 문명은 알 수 없는 차별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그래서 늘 분노와 살기를 생산한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없이 여기다', 곧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존재를 무시한다는 얘기다. 버젓이 있는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니 살인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살인은 사람을 죽여 없애는 것인데,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역시 사람을 산 채로 없애는 것이다. 살인보다 더 근본적인 폭력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것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데 모든 폭력의 근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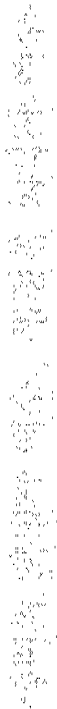
프로이트는 발생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공격 본능을 추적했지만, 신학의 시각에서 보자면 공격심이 본능으로 뿌리깊게 자리잡기 이전에, 뿌리깊은 인간 차별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에서 생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죄의 모습이다. 모든 차이를 차별로 만들면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차별받은 데서 생기는 분노에 차 있다. 문명 속에 사는 한, 사람은 누구나 차별받는다. 차별하면서 또 차별받는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사라질 가능성이 없을 때 좌절한다. 인간은 언제나 희망을 지니고 있지만, 뿌리깊은 좌절도 함께 안고 있다고 봐야 옳다.

폭력은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좌절은 업신여김을 받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차별받는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폭력의 핵심을

차별받은 카인이 결국 살인하지만, 살인 이전에 차별이 곧 최초 폭력이다. 성서에는 그 차별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차별을 뜻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일구는 문명은 알 수 없는 차별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그래서 늘 분노와 살기를 생산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시하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음이요,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외면하는 것이다. 사람을 업신여김은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얼굴을 보지 않음, 즉 대화의 단절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말로 안 될 때 폭력이 나간다. 말로 한다는 것. 폭력의 극복은 말에 있으며 대화에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인간의 문명에는 말의 단절이 깔려 있다. 말이 안 통하고, 힘있는 자가 약자의 말을 막는다. 상대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대면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하기를 끊고 절대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최초 폭력이다. 권력 의지다.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다. 사람은 언제부터가 우열을 가리는 데 익숙해 있으며, 문명은 우열에 따라 사람을 가르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가지고 남녀를 차별하고, 어른과 어린아이를 차별하고, 신분 계급에 따라 차별하고, 빈부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피부 빛깔로 차별하고, 키가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차별한다. 그런 차별을 통해 질서를 잡으려고 했다.

오늘날에는 능력의 차이를 중시한다. 그것은 생산력을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것처럼 우열을 가리는 것은 결국 열등감을 만든다. 능력의 차이가 결국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간다. 능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은 사람에게 의한 사람 지배로 간다. 권력 의지와 문명의 발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한 권력 의지가 남을 무시하는 폭력이 되고, 무시당한 사람은 분노로 휩싸여 무시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기를 띤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런 폭력의 악순환 속에 살고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절대자로 계시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기 원하시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무능한 하나님ی 되지만,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을 누르고 싶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랄 때도 전능한 하나님만 원한다.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기 어렵다. 상대하는 것을 잊어 버렸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을 잊었고, 사람을 상대할 줄 모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은 사람에 대해 피해 의식을 지니고 있다. 피해 의식은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하고, 외면하게 만들어 기본적으로 공격적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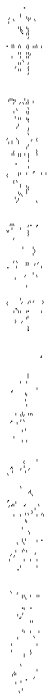
그것이 사람이 처한 근본 상황이다. 이 사회에 사는 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남을 누르면서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존재 그 자체가 긍정되는 경험은 멀어진 지 오래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의 출발은 존재 자체가 긍정되지 못하는 데 있다. 남의 인정을 받아야 존재가 긍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은 남들이 모두 바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해 애쓴다. 남들도 모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남과 충돌하게 되고, 남을 이겨야 자기가 살게 된다. 결국 남에 대한 지배가 된다. 지배함으로써만 자신이 긍정된다. 폭력은 인간 자신의 존재가 긍정되기 위한 기본 구조가 되었다. 남을 이겨야 살게 된 인류 문명의 기본적인 폭력 구조.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오늘날 그런 구조 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나는 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폭력을 타고난다고 할 정도로 폭력심은 뿌리깊다. 전적인 타락이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선을 모르고 행할 수도 없다. 선에 관한 한, 무지와 무능이다. 생명 있는 존재 그 자체가 긍정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악의 구조를 우리는 율대에서 물려받았다. 원죄의 유전설은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조상처럼 똑같이 그 구조를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폭력의 미학이라고 하나? 폭력 영화가 판을 치고 관객이 넘쳐 난다. 이지매나 왕따라는 것도 학교 문화의 한

긴장이 강한 사회일수록 희생양을 잡는 회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커진다. 우리 나라 학생들 사이에 그런 왕따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도 매우 강한 긴장 속에서 사는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희생양 구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사회에나 작용한다.

모습이 된 지 오래다. 희생양의 역할 구도가 우리 사회에도 깊숙이 들어 왔음을 알리는 현상들이다. 희생양이란 다수가 죄 없는 약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못매질하는 것을 가리킨다. 약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다. 사람 사는 사회는 앞에서 본 대로 폭력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늘 긴장이 흐른다. 그래서 그 긴장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폭력으로 질서가 잡히지 않고 사회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자를 잡아 거기에 대고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자신의 긴장을 해소하고 사회는 유지된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존재 자체가 긍정되지 않아 생긴 인간의 공격본능은 끊임없이 폭력을 양산해 내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사회를 유지시키는 또 다른 폭력 장치가 있으니 그것이 희생양 구도다.

긴장이 강한 사회일수록 희생양을 잡는 회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커진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늘 긴장해 있다. 그런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누구를 따돌려 골려 주고 괴롭히는 이지매다. 색다른 옷차림을 한 재일동포 학생들이 흔히 그 대상이 된다. 그들은 저항할 힘도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희생양감으로 적격이다. 누구를 공격하면서 나머지는 친해지거나 평화를 도모한다. 우리 나라 학생들 사이에 그런 왕따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도 매우 강한 긴장 속에서 사는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희생양 구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사회에나 작용한다.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런 희생양 역할을 오래 당해 왔고,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L. A. 폭동에서는 한인촌이 희생양이 되었었다. 자기 사회의 모순에서 생긴 폭력심을 해소하기 위해, 색다른 모습을 한 약자인 유대인이나



한인들이 선택된 것이다. 인간의 문명은 이처럼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최소한 지구 어느 한 구석에서는 전쟁이 있어야 세계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인간의 폭력심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다.

현대 문명의 폭력성

현대 문명은 자연에 대한 폭력을 밑에 깔고 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의 생명 경시라고 하면 자연 파괴를 연상하게 된다. 흔히 폭력이라면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가리킨다. 우리는 앞에서 폭력이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지 못하는 자세라고 했다. 생명이 있는 인간이 그 자체로 긍정되지 못하고 남을 지배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폭력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나 생명체라고 할 때 자연도 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자연 생명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졌다. 조심스럽게 모셔졌다는 표현이 더욱 어울릴 것이다. 인간에 대한 폭력은 일찍부터 인류 문명의 바탕을 이루었지만, 자연에 대한 폭력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자연 법칙을 발견하면서부터 사람은 자연을 더 이상 섬기거나 '상대' 하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위적으로 자연의 흐름을 끊고 자연에 대해 인간이 절대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땅의 숨이 죽고, 자동차 배기 가스가 공중에 들어차면서 공기의 숨이 죽었다. 그리고 사람은 자연과 단절된 인위적인 공간 속에서 최첨단 시설로 더 나은 삶을 확보하려고 한다.

의학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늘고 신생아의 자연사가 줄어들어도 현대 문명의 결과다. 그리하여 인구가 급속하게 늘게 되는데, 이상하게 먹거리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인간 차별 없는 평등은 기회 균등을 통해 누구나 경쟁에 끼어 들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과학 정신이 가져온 인간 관계의 변화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맞아떨어지면서 경쟁력 강화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만들어 내었다.

역시 과학의 발전 덕분이다.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식탁과 주거 환경이 더욱 기름져진다. 예전 같으면 축제 때나 먹었을 음식을 하루 걸러 먹고 배를 두드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연에 대한 학대가 있다. 육식이 늘면서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해야 했고, 거기에는 동물에 대한 온갖 학대가 뒤따른다. 그리고 학대받은 동물의 고기를 사람은 먹고산다. 자연에 대한 폭력의 문명이다. 그것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간 파괴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날 배아 복제나 인간 복제도 인간을 이롭게 한다지만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자연에 대한 폭력은, 원래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막으려고 하는 이상과 함께 출발했다. 이른바 과학 정신은 자연뿐 아니라 인간 관계를 합리화함으로써 부당한 인간 차별을 없애 보고자 했다. 이른바 인권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문명은 신분제를 없애고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제를 확립함으로써, 사람 차별이 없이 기능의 차이만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물질이 늘면서 잉여 가치가 대중에게 돌아가 대중 문화를 낳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쟁 사회를 이룩했다. 전에도 경쟁이 있었지만 신분제 안에서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경쟁할 수 있었고, 하층민은 아예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었다. 인간 차별 없는 평등은 기회 균등을 통해 누구나 경쟁에 끼어 들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이것이 과학 정신이 가져온 인간 관계의 변화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맞아떨어지면서 경쟁력 강화라는 지상 최대의 과제를 만들어 내었다.

이제 모든 것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움직인다.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지

만 예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생각하기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바쁘게 돌리면 사는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경쟁에서 지면 살아 남지 못하게 된 현대 문명의 체제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최대 목표는 삶의 의미 물음을 묻지 못하게 한다. 사실 인간 복제라는 것도 윤리적인 가치 물음을 묻기도 전에, 상업 쪽에서의 요구가 관철되고 있다. 윤리 문제 때문에 머뭇거리다가는 생명 공학에서 뒤떨어져 결국 엄청난 로열티를 외국에 물어야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말도 맞는 말이어서 인류 전체가 문명의 방향을 틀지 않는 한, 어느 한 나라가 경쟁력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개인이나 국가나 학교나 모두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무얼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상의 물음은 없다. 지면 죽는다는 것만 있다. 오늘날 미국식의 자본주의가 WTO나 IMF 체제를 통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그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대 문명은 사람에게 대한 폭력을 조장한다. 능력 위주의 사회는 생명 경시를 낳는다. 생명이 존재 그 자체로 긍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생산을 위한 재료요, 인간도 경제 가치 생산을 위한 수단이 된다. 생명체가 생산 요소로 전락한다. 능력 위주의 경쟁 체제는 결과적으로 인간 소외를 낳는다. 이전의 사람 차별이 사라지면서 경쟁 체제가 생겼지만, 능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람 차별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경쟁에서 비롯되는 사람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경쟁이 없으면 사람은 부패하고 나태해진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공산주의의 실패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들어 있는 또 다른 폭력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공동 생산 공동 분배가 낳는 비효율성이 중요한 원인이다. 효율성을 위해선 사람에겐 어떤 방식이든지 차별 대우가 필요한 모양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그런 차별 대우에 바탕을 두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의기

만일 하나님께서 폭력적이라면 폭력은 운명이다. 그러나 폭력성은 인간의 책임이므로 인간이 바뀌면 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성서는 희망적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존재 자체로 긍정되기 때문이다.

양양해하고 있다.

현대 문명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취하면서 일으킨 폭력은 자연에 대한 폭력을 극복해야 치유될 것 같다. 그것은 단순히 생태계를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 새로운 정신 문명의 문제일 것이다. 자연과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끼리 폭력 없이 사는 길이 발견 될 것 같다.

이제 글을 마치자. 오늘날 보이는 문명의 폭력성은 인간의 폭력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학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우리 모두가 폭력에 동조하고, 폭력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다. 희생양을 잡는 구도는 폭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폭력심의 카타르시스에 불과하다. 그런 폭력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죄를 타고났고, 죄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절망적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인간의 원죄를 말하는 것은 희망의 복음이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폭력적이라면 폭력은 운명이다. 그러나 폭력성은 인간의 책임이므로 인간이 바뀌면 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성서는 희망적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존재 자체로 긍정되기 때문이다. 남을 이겨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이 발생한다. 업신여기고 차별받는 것이 사라진다. 생명 자체를 긍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생명체인 나를 차별할 수 없다.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면 나부터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생겨난다. 희망은 사람에 대한 희망이다. 사람에게서는 절망하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는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 희망을 둔다. 그리고 사람이 일구는 폭력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것은 여전히 사람 책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폭력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27**